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 천주교 하와이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hurch Of Hawaii

연중 제2주일

발행 천주교 하와이 한인본당  
발행인 김영근 야고보  
편집 하와이 한인본당 편집부

주소 2949 Kahawai St. Honolulu, HI96822  
이메일 [kccmanoa@hotmail.com](mailto:kccmanoa@hotmail.com)  
홈페이지 <http://hi.dj catholic.or.kr>

2018년 1월 14(나해)  
제 1895 호



## 오늘의 미사

### 입당송

하느님,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분,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제1독서\_사무엘기 상권 3,3ㄴ-10,19

### 화답송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제2독서\_코린토 1서 6,13ㄷ-15ㄱ,17-20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네. 은총과 진리가  
그분에게서 왔네. ◎

복음\_요한 1,35-42

### 영성체송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이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화답송





# “와서 보아라”



박진홍 요셉  
주교좌 대흥동 주임

올해 우리 대전가톨릭대학교 신학과 입학에 희망하는 예비 신학생이 세 명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선교사 신부님들께서 목숨 걸고 신학생 세 명을 선발하여 마카오로 유학을 보냈던 1836년 조선 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2018년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25년 전 대전교구 신

거룩한 교회는 그 안에 너무나 소중한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보물을 지키려는 마음이 잘못 표현되어 거룩함이 ‘두려움’이나 ‘엄격함’ 또는 ‘어두움’이나 ‘무거움’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이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히 가까이 다가서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을 맞을 것 같은...’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반발로 교회를 무시하려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거룩함의 이미지는 마굿간에 태어난 아기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미지여야 합니다. 모두가 사랑받고 모두가 용서받는 곳,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모두가 사랑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이 시대에 보여 주어야 할 것은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진심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성소는 ‘성소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속적 욕심을 채우는데 도움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곳, 기도로 천상의 교회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이들이 사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곳이야말로 거룩한 아기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고, 거룩한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회가 어떤 곳이냐고 물어볼 때, “와서 보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을 스스로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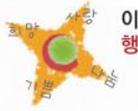
자 들이 온 마음을 다해 기도를 드리고 모금도 하며, 겨우 마련한 대전가톨릭대학교! 23명의 첫 입학생을 보 하느님께 감사드렸던 그날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상황 앞에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뻔쭈해진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미래를 생각 못하고 무리하게 신학교를 만든 생각부터 잘못된 거야!’라며 강 건너편에서 비겁한 비난이나 증언거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아담 하와 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못된 습관! 무슨 일(?) 생기면 희생양 하나 뽑아서 책임 전가부터 하려는 습성을 그대로 살려서 ‘성소국장 나와! 책임져!’라고 소리를 지를 것인가?

저는 이 시점에 오늘 복음을 통해 “와서 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체험을 합니다. 교회는 ‘어디에 묵고 계시냐?’고 질문을 하는 이 시대 앞에서 어떤 응답을 하며 살아왔던가? 하는 반성과 함께 말입니다.



바울이  
(740)  
유판식 토마스





이충무의  
행복나침반 (195)

# 복 많이 깨달으세요!



해가 바뀌고 나서 한동안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주로 지인들로부터 온 신년 축하 메시지였습니다.

새해 덕담을 전하는 고마운 마음들을 느끼며 저 또한 답글로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문자 메시지가 제가 보낸 답글 또한 거의 천편일률적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달라도 덕담은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던 중, 정말 독특하고 기발한 문자 메시지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깨달으세요!”**

짧지만 그 자체로 소중한 깨달음을 주는 덕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복을 받는 것과 복을 받고 있음 느끼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복을 받는 건 ‘행운’을 바라는 것이고, 복을 받고 있음 깨닫는 건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지 않아도 주어진 고마운 것들은 생각보다 많은데, 우린 그것들을 종종 잊기에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언제 행운이 내게 찾아올까 기다립니다..

매 순간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 자체가 은총임을 깨닫는 지혜로 한 해를 기쁘게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새해에는 복 많이 깨달으세요!”

이충무 바오로/ 극작가(건양대학교 교수)

<p><b>옥 치과</b></p> <p>일반치과, 신경치료, 응급치료 메디케어 제공 / 946-2785</p>	<p><b>동양관광여행사</b></p> <p>항공권도매/섬일주/이웃선 관광/호텔예약 944-3949/info.orient1988@gmail.com</p>	<p><b>브라이언 오토 바디샵</b></p> <p>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p>	<p><b>김남훈(베드로)CPA</b></p> <p>회계감사, Book Keeping, 세금보고 947-2470</p>
<p><b>New York Life</b></p> <p>은퇴연금/학자금/재산증식/무료상담 차 그레고리오 / 226-3344</p>	<p><b>MYCOMP</b></p> <p>컴퓨터 수리 &amp; 교육(그룹, 개인) 김효석(요셉) / 398-9695</p>	<p><b>최 니콜 부동산</b></p> <p>732-5004,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p>	<p><b>65세 이상 건강보험</b></p> <p>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203-7038</p>
<p><b>United Credit Education Service</b></p> <p>크레딧 교정, 복원 전문회사/무료상담 백승희(아나스타시아) / 931-9249</p>	<p><b>메리장 가정의학 클리닉</b></p> <p>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료합니다. 예약전화 808-941-7799</p>	<p><b>아일랜드빈티지커피</b></p> <p>알라모아나/로얄하와이안 쇼핑센터 강호철 (바오로) / 941-9300</p>	<p><b>최현희(보나) 부동산</b></p> <p>부동산매매/상담 및 문의를 환영합니다 636-5217</p>

함께 나누고픈 좋은 글이나 후보관련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kccmanoa@hotmail.com 한인분당사무실(988-6047)

**성경 통독 안내 (준비물: 새번역 성경)**

시간 : 11시 5분 ~ 11시 25분

오늘의 본문: 창세기 21장-23장

통독 방법: 성경 본문을 펴시고 오디오 성경 속도에 맞춰 눈으로, 속으로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성경 공부 강의 및 주일 미사 강론 시청 방법**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경 공부 강의 및 주일 미사 강론을 시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한인 성당 웹사이트(<http://hi.djcatholic.or.kr>)에 들어가시면 "자유 게시판"에 성경 공부 강의 및 주일 미사 강론 시청하는 방법"에 들어가시면 회원 등록하는 방법과 동영상 보는 방법이 나옵니다. 많은 분이 같이 시청을 하시고 배워가길 바랍니다.

**성인 복사단 모집 안내**

성인 복사단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문의 : 박경선 베드로(391-2757)

**와이키키 소공동체 모임 안내**

시간 : 1월 둘째 주일 오후 4시 30분

장소 : 기아모쿠 참전용사관

**가이무키 소공동체 모임 안내**

시간 : 1월 둘째 주일 오후 4시

장소 : 교육관 독서실

**마우나케아 소공동체 모임 안내**

시간 : 1월 셋째 주일 오후 5시

**마노아 위령 봉사회 모임 안내**

시간 : 1월 셋째 주일 교중 미사 후

장소 : 성당

**주일학교, 한글학교 안내**

2018년 1월 14일은 주일학교, 한글학교 수업이 없습니다.

**운전 봉사자를 모집 합니다.**

담당자 : 흥 프란치스코 (836-5887)

**주보에 공지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이메일로 화요일까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ccmanoa@hotmail.com](mailto:kccmanoa@hotmail.com)]**

**지난 주(1월 6, 7일) 우리들의 정성(\$ 13,162)**

주일헌금	교무금
\$ 3,283	\$ 7,030

\*헌 금 : 토요 \$ 562 아침 \$ 651

교중 \$ 1,893 청년 \$ 177

\*교무금 : 토요 \$ 1,340 아침 \$ 1,500 교중 \$ 4,190

\*미사책 \$ 60

\*성소후원금 \$ 1,146

\*성물 판매 \$ 553

\*발전기금 \$ 170

**미사 시간 안내**

마노아	•주일미사 : 오전 6:30, 11:30(교중 미사), 오후 3:00(청소년 미사)
	•평일미사 : 화요일 오후 7시, 수요일 오전 10시
	•성 시간 : 첫 화요일 7시 미사 중
솔 렉	•주일미사 : 토요일 오후 7시 •평일

**주임신부 : 김영근(야고보) [사제관 (808) 892-1480]**

▪ 사 무 실 : 전화. (808) 988-9678 팩스. (808) 988-6047

이메일. [kccmanoa@hotmail.com](mailto:kccmanoa@hotmail.com)

**예비자 교리 :**

매주일 10시 강당 회의실

**성경 공부**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성당

- 솔렉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미사 후 강당(솔렉성당 지하)

▪ 병자성사나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환자 또는 망자 발생시는 연령회(회장 박춘경 데레사 224-3335)로 연락주시시오.